

지역건축탐방 ③ - 아산 · 부여 · 공주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Asan · Puyo · Kongju

지역문화경관과 현대도시건축

Landscape of Regional Culture and Contemporary Urban Architecture

정무웅 / 아산 · 부여 · 공주지역 편집디렉터,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공학박사
by Jung Moo-Woong

본 특집은 지방시대에 지역건축문화가 어떻게 변화·정착되고 있는가? 그 지역만의 갖고 있는 도시+건축문화의 아이덴티티(Identity)는 무엇이고, 현대화과정에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경관요소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병립된 사회요구 속에서 어떻게 적응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봄을 의도하고 있다. 특히 백제문화권의 중심도시인 아산, 부여, 공주의 도시특성을 이루고 있는 도시공간구조 및 구성요소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경관요소의 현황을 살펴본다.

본고는 현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전통성이 있는 문화요소를 지역성의 개념과 상관적으로 관련시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가 지역을 초월하여 국제적으로 교류되면서, 생활의 편익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국가와 민족의 차이를 넘어 동일한 지구문화형성의 과정으로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현대화=서구화라는 등식은 서구문화의 간결한 편익성이 낳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따라서 현대화를 생활의 변화로 이해할 때에 전통논의의 여유가 있고, 전통논의에 대한 객관성이 있으며, 편협된 전통관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이 변하고, 특히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 건축환경이 변한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건축환경이 변하지만, 누적된 변화는 커다란 차이로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적응(Adaptation)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많이 논의되어온 보전과 보존의 방법론적 세분화에 의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서 '전통성을 갖춘 도시·건축구조물을 단순한 유적, 유물로 보존할 것인가,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과 함께 하는 문화현상으로 적응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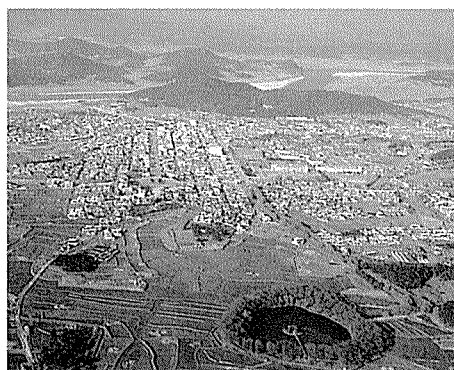
1. 지역문화

1) 지역문화경관

어느 지역(또는 도시)의 경관은 오랜 시간동안 퇴적, 침식과정을 거쳐서 그 시대의 단편적 모습으로 표현된다. 도시경관은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풍토(산, 강, 미기후...)를 배경으로 하여서, 각종 인공구조물(도로, 교량, 건축물...)으로써 그 시스템(System)이 형성되며, 그 속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고유한 생활양식으로 활성화된다. 이때에 삶과 함께 오랜 시간 속의 삶의 흔적(유물, 유적, 관습, 양식...)을 문화경관요소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경관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천안시 전경



부여시 전경



공주시 전경

(As It is) 어우러질 때에 그 도시는 생동감있는 탄력성을 지닌다. 본고의 대상지역은 금강과 백마강, 계룡산과 부소산 등의 자연요소에 의해 도시공간의 규모감각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삼국시대 백제문화권 수도로서의 고유한 문화풍토와 각종 유적(건축, 고분, 탑...)등은 이 지역의 고유, 우세한 문화경관요소(Dominant Cultural Landscape)이다. 자급적인 현대 도시기능과 우세문화경관요소의 보호(Wants)라는 양립된 시대적 요구(Needs) 사이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2) 건축의 문화현상과 생활양식

문화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 총체개념으로서,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된 번역어이며 그 본래의 뜻은 경작, 재배이다. 문화에 대한 사전적 개념은『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 행동양식(행태) 중에서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는 것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이다.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는 관점에 따라서 수십 종류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개념으로 집약된다.

- ① 어느 집단의 생활양식(A Way of Life)
- ② 상징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일련의 상징, 의미, 규범 (System of Symbols, Meanings and Schemata)
- ③ 자연과 생태계에서 생존을 위한 일련의 적응단계(A Set of Adaptative Strategies)

즉, 위의 사항을 요약하면 「시간을 통해 학습에 의해 전승하는(받는) 생활양식, 생활규범과 생태적 적응현상」이다. 또는 「일련의 인간의 학습을 통해 정착된 행동양식(A Set of Human Behavior)」이다. 이 때 주요 관심사항은 어느 지역·시대의 인간의 행동양식(Behavior)에 의해서 표현되는 생활양식(Life Style)과 그 생활양식 속에 내재되어 생활에 기준이 되어, 주도하는 상징적인 생활규범(Meaning and Schemata) 그리고 이를 위한 일련의 생존적응수단(Adaptative Strategies)이다. 즉, 문화는 생활환경→행동양식간의 상관적 관계(Environmental Behavior Relationship)를 통해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 상관성은 문화의 주요한 요소이다. 인간 생활을 위한 모든 생활환경과 행동양식(Behavior)과의 상관적 현상인 문화개념은 건물은 물론이고 그 안팎에서의 생활과 깊이 관련된다.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물과 담겨진 생활자체를 포함한 포괄적인 총체가 문화이다. 건축을 한다는 것 또는 건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현상(Culture in Architecture)이고, 그 형태나 내용(공간질서+생활양식)의 체계화 작업(계획 및 설계)은 그것이 속해있는 문화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Architecture in Culture) 그래서 건축

(Architecture)은 건물(Building)과 구분되어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건물은 구조체계와 재료배분 및 기술적 환경설비체계 등의 물적 요소와 그러한 물적 요소의 조직체계속에 공존하는 공간과 시지각 대상으로의 심미적 형태 등을 이르고, 건축은 건물의 목적의식, 시대배경, 역사적 장소성, 주변과의 상관성(Context), 기능용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의 생활이 총체적 문화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는 주거와 거주에도 함께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실질적인 생활과 그 생활이 영위되는 배경적 장치(건축환경)로 이해할 수 있고, 생활→환경간의 상관적 현상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건물의 단계를 넘어서 건축문화현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인간이 건축환경(Built Environment)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 -처칠- 환경이란 「유기적 생명체는 물론 그를 에워싸서 영향을 주고받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Surroundings)」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건물 및 도시구조물을 포함한 인공환경과 인간생활과의 상관성은 건축을 문화현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효한 관점임을 전술한 바 있다. 이 경우 어떤 생활환경과 그 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된 행동양식을 포함해서 새로운 문화환경이 되는 순환관계에서 상호작용되는 현상 또한 주요한 사항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생활양식(Life Style)은 어느 지역·집단의 누적된 여러 행동양식에 의해서 표현되고, 이 행동양식(행태)은 일상생활 속의 여러 행위 및 행위조직(Activity & Activity System)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이 때 행동양식이나 행위 등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 종교, 가치관, 윤리성 등에 의해 조절·형성된다.

2. 문화경관과 가변적 융통성

생활은 고정되어 경직된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화함이 생물의 특성이고, 이러한 변화의 동인(動因)을 한계없이(Open-Ended)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서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드러나게 함은 건축행위를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고 생활화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도시건축문화현상 속에서 건축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복합적 그리고 대립적 구성은 현대건축의 특성인 동시에 현대건축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건축행위에 적용하는데 어려운 요인이 되기도 한다. 건물의 용도가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사용자 계층이 불특정 다수로 형성되어서 건축공간의 배분과 조합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많이 체험한 바 있다. 현대생활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건축행위의 수단으로서 생활환경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대건축문화의 어려운 점이다. 상황의 변화(시간, 지역, 요구)에 따라서 생활양식이 변하고, 그 생활을 담는 생활환경 역시 변한다.

이때에 쉽게 또는 빠르게 변하는 요소를 주변요소(Periphery Elements)라 하고, 변치 않거나 느리게(조금씩) 변하는 요소를 핵심요소(Core Elements)라 한다. 핵심요소에는 언어, 종교, 가족제도, 식사, 영역성이나 사적보호의식(Privacy), 생활규범이 있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종류, 크기, 정도 등은 점차 약화되고, 반면에 주변요소의 종류, 크기, 범위 등은 증대한다. 즉 주변요소는 생활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동화하지만 문화적 핵심요소는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상처·대립·충돌하면서 아주 천천히 생활양식을 변형시키거나 생활환경을 일부분 변형시키면서 적응한다. 이러한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행동양식과 생활환경이 결합된 새로운 생활양식이 발생하며, 이 개념을 보다 넓게 전개하면 그 시대·지역을 대변하는 한 집단의 또는 한 국가나 민족의 생활양식으로 정착하게 된다. 또한 아모스 라포포트는 건축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그들의 가변적 융통성을 중심으로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고정요소(Fixed Elements), 반고정요소(Semi-Fixed Elements), 그리고 비고정요소(Non-Fixed Elements)이며, 고정적 요소에는 자연요소(산, 강, 자연구조체계), 역사문화유적, 도로 시스템, 건물 주요구조부, 설비시스템, 동선체계 뿐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정주양식을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다양성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가변적 융통성(Flexibility)의 사전적 개념은 유연한 상태, 즉 외적양태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요한 성능의 안전성이 유지되면서 형태나 조직을 변경시키는 능력이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또한 가변적 융통성은 경직성(Rigidity)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 경직성에 해당되는 요소는 전술한 고정적 요소와 관련되기도 한다. 생활환경→행동양식의 적응과정에서 가변적 융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직성 요소의 크기, 종류 등을 감소시키므로써 가능하고 반고정 또는 비고정 요소에 대해 적절한 조절방안이 필요하다. 고정요소가 결정된 상태에서의 생활환경에서는 고정요소를 변화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며, 가변의 과정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 지역은 도시의 형성과정과 배경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자연요소에 의해 1차적으로 한정되어서 고유한 문화경관요소가 오랜 시간동안 축적되어 형성된 특성있는 곳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문화경관요소는 도시공간구성요소 중 가장 우세한 고정요소이며, 자연요소, 기존 도시골격과 함께 이러한 것들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는 그 속의 생동감있는 삶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존재의의가 있고, 이러한 생동감은 시간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도시구성의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고정요소들의 전체파악이 이루어진 후, 도시 및 지역계획 그리고 건축계획적인 실천적 대응방안이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서 설정될 때에 가변적 융

통성(변화요구대응)의 범위와 방법이 구체화될 수 있다.

3. 현대화와 보존, 개발 그리고 전통성

현대의 특성은 복잡대립성, 급속한 변화, 애매 모호한 불투명성(익명성)으로 대변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급속한 변화는 현대화의 특성이다. 국토계획·지역계획을 통한 개발의 현실적 필요성(Needs)은 보존의 원함(Wants)과 병립되게 되고, 이 두 가지 사항의 거리를 좁히거나, 연결시키는 현실적 지혜와 지식이 동시에 요구된다.

현대화 과정에서 문명의 편익성에 익숙해진 후손들이 전통적인 도시건축환경에서 체감하는 생활의 적응과정은, 본 주제를 전개하는데 매우 유효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질적인 두 개의 문화가 만나 서로 주고 받는 영향요소는 무엇인지, 도시건축문화로 정착하는 과정(Cultural Adaptation)의 현상 파악을 통해서 접근해 보기로 한다. 이때 이질적이란 개념은 시간적 차이에 의한 이질성, 지역적 차이에 의한 문화배경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전통적 생활공간 속에서의 현대인의 생활의 적응은 전자의 사항이고, 한 문화배경에서 사회화 과정(성장과정)을 거친 후에 문화배경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후자의 사항이다.

도시, 건축공간을 포함한 모든 환경요인은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인간의 여러 생활양식은 새로운 환경요소로서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는 순환성이 있다. 박물관 속에 진열되어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생활과 관련되는 여러 사항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현상은 진열장 속의 고정된 관람대상(또는 관광대상)으로만 존재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보존과 보존의 문제점이 있다. 박제(剝製)된 또는 동결(凍結)된 상태로 보존할 수만은 없는 문화의 특수성과 함께 또한 역사적 원형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양면성은 전통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원형과 변형에 대한 유연성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축적된 연구성과와 우리들의 문화의식의 고양이가 중요사항이다. 이에 '전통성'이라는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이란 어휘의 사전적 개념은 '계통을 전해 받음' 또는 '이어받은 계통'이다. 이때에 시간성이 논의되어지고, 시간을 통해서 변치않는 요소(Cultural Core)의 발견이 문제가 된다. '전통'이란 어휘의 개념이 '오랜 세월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원형적 요소(Core Element)'로 이해될 때에 자연히 '현대'와 결부되어진다. 즉, 그것을 논하는 시점에서 소급되어지는 시간성과 생활(Life→Behavior→Activity)로써 체험, 공감하는 공간성의 양면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질적 배경의 두 개(또는 그 이상)의 문화가 접했을 때 나타나는 적응과정 및 현상결과는 전통적 요소의 파악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보편적으로 우세한 경우의 문화를 호스트 컬처(Host Culture)라 하고, 지엽적이고 약세의 경우를 마이그먼트 컬처(Migrant Culture)라고 한다. 대개의 경우 'Migrant Culture'는 'Host Culture'에 흡수·동화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치·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개개문화의 Core요소는 쉽게 변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거나 두 문화의 혼화(混化)된 변형(變形, Syncretism)으로 지속한다. 과거(또는 이 지역)와 현재(저 지역)의 두 문화요소의 혼화성(混和性)은 그 시대(그 지역)의 새로운 전통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두 문화가 접했을 때 약세의 문화는 우세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크게 변하다가 시간흐름에 따라(Generation이 바뀌면서) 고유의 전통적인 것을 원하게(Wants)되고, 그 다음에 실제생활에서 필요한 것으로 요구(Needs)하게 된다. 실제생활에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며, 그 관계는 실제생활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문화배경의 강약에 의해 변화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에 대응하는 환경적 요소로서 보존·보존대상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전통성에 대한 유연성있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화경관 요소의 양식·구법·장식·재료·규모·위치 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대상으로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되, 현대인의 생활과 직접 대면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요구된다.

4. 도시문화경관 보존사례: 일본

지역적 전통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문화규범이 정착된 여러 나라에서는 보존과 보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의 제도가 제정되어, 대학에 설립되거나 전문연구기관에서 높은 관심하에 연구·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고 근대화에 의한 고도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 및 결과를 먼저 체험한 일본 경우의 연구·시행사례를 살펴본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데 유용하다 하겠다. 일본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고유한 문화권 배경하에서 독특한 지역적 전통건축문화가 형성되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건축물이 파괴·훼손되었고, 따라서 수많은 건축물의 수요가 일시에 발생하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은 이같이 단절되어 온 전통과 근대화 사이의 연속성을 위한 작업을 목조건축 기술개발을 통해 시작하고 있다. (安藤邦廣)

우선 목조건축의 퇴보원인을 살펴보면, 목재자원이 고갈되었다는 점과 전통적인 장인(匠人) 조직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급속한 도시화·근대화 경향과 함께 목조건축을 다른 구법의 건축으로 대체 요구되는 상황과 순환적 상관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조건축의 재평가와 전통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목조건축 부흥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목재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목구조기술(Pre-Fab)이 개발되었다. 또한 생활방식이 바뀌고 이에 따른 건축공간의 용도가 바뀔 때 따라 부분적으로 건축의 내부기능과 외부형태가 변화되는 현상을 낳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다루는 지역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로서의 전통적인 기술을 계승한다는 것은, 사회적 관심과 문화의식이 고양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현상이 아마로 전후의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여유를 생활화하는 일본인들이 실제생활에서의 필요성(Needs)과 여유있는 전통성에 대한 원함(Wants)사이에서 안정된 감각을 회복한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다음은 개체건물의 점적(點的) 요소가 선적(線的) 환경으로, 다시 면적(面的)인 지역·지구로 확산·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실생활이 함께 하는 건축환경의 건전한 가치성 회복이라는 명제와 함께 일본에서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자. (西村幸夫)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1964년 동경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 세계적 축전을 계기로 동경의 광역도시 재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고(首都高速道路·環狀道路·東海道新幹線 등), 이러한 건설과정에서 보존·보전에 대한 문제가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정착되었다. 1958년 '三溪園(神奈川縣横市) 건설을 시작으로 1960년대에 여러 곳에 건축박물관·민가촌(民家村)·민속촌(民俗村)을 건설하여 도시의 각종 공해요소로부터 격리·보호시키는 보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국민적인 높은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얻게 되었다.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사실은, 1966년에 자발적인 주민들에 의한 보존회의 결성이다. 즉, 생활이 빠져나간 공허한 박물관 속의 진열품이 아닌, 생활이 살아있는 보존을 위한 가치있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70~79년 사이에 약 40여개 지구에서 주민들 스스로에 의한 보존회 결성과 시행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이와 함께 1968년 '金尺市傳統環境保存條例'와 같은 지방정부에서의 법적제도 및 지역설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1975년 문화재보호법개정과 함께 '傳統的建築物保存地區制度'가 도입된다. 동시에 1978년에 건설성(建設省) 주관하에서 462개 지역에 대한 '歴史的環境整備實態調査'의 대규모 조사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존과 보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설정되면서, 절대적인 보존사업은 그대로 설정 시행하되, 생활이 함께하는 보전을 위한 지혜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축·도시설계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모아지고 있다. 즉,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풍토·문화적 배경에 맞는 실생활을 전제로 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고정된 환경요소(Fixed Elements)로서의 양식(생활+건축)은 지키되, 재료나 부속물은 변경 가능하게 한다든지, 원형과 변형의 범위를 분명하게 결정하여 준수하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디자인 가이드라인(Design Guideline)의 몇몇 유형을 마련하여 선택시행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5. 끝으로

본 특집의 대상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서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문화, 행정, 교육의 중심지이다.

상위계획인 국토개발계획에서부터 지역, 도시계획에 따른 그 도시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산업구조의 새로운 개편이 요망된다. 문화관광자원의 물성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비가시적인 역사·의식, 삶, 시대정신은 이 지역의 우세요소이면서 도시환경 측면에서 볼 때 고정요소(Fixed Elements)이다. 도시기본구조, 문화유적, 지하구조체(Infra System) 등의 고정요소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 보존하되, 현대화에 따른 생활의 편의성 해결을 위한 반고정, 비고정 요소는 가변적 처리에 의해서 생활양식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옛 도읍 형성과정에서도 작용하였듯이 산, 강 등의 자연요소에 의해 도시의 골격과 규모가 한정되었으므로 새로운 도시구조, 산업체계형성을 위해서는 강을 경계로 한 미개발지역에 신도시(Newtown)조성을 하되 도시산업구조에 맞는 적정규모의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며, 자생력확보를 위해서 관광자원의 점-선-면적인 위계를 갖춘 연계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공업지역에 입주하는 산업체는 시각적 위해요소, 공기오염 등의 공해요인이 적은 산업체의 선별이 필요하다. 문화경관요소는 고립된 분리개념이 아닌 쉽게 접근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인공환경건설(계획)시에 그 형태, 규모(건폐율, 용적률, 층수)와 색상, 재료(색상, 질감)의 가이드라인(Guideline)이 필요하고, 도시가로공간 중 주요지점에서 연결되는 통경선(View Corridor) 확보를 위한 도시경관광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건전한 문화의식이 고양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의 실천이다.

백제문화권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Paekche Cultural Region

김억수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장
by Kim Euk-Su

1. 머리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19세기와 20세가 경제위주의 시대였다면 곧 다가올 21세기는 문화나 정보의 시대가 될 것이다. 경제위주가 되었던, 아니면 정보위주가 되었던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정신 속에 문화의식이 깃들여 있어 야만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인 성숙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작업은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하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백제문화권을 조명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백제문화권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백제가 개국하여 멸망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공간적으로는 백제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 영역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영역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도 백제의 범위 속에 포함되는 것이 달랐으며, 또한 백제가 멸망한 후라도 백제의 문화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 일정한 한계를 분명히 가릴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백제문화권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반 경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자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호남지방에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신라문화권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 막연하게 사용한 것¹⁾으로 추정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백제의 역사·문화·정치·종교·사상·생활 등 기존의 연구 성과 및 업적을 참고하여, 백제사 연구의 현황과 지금까지의 백제문화권 개발상황을 고찰(考察)해 봄으로써 백제문화권의 현재적(現代的)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백제사(百濟史) 연구의 현황

‘역사’라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거나

1) 李康承,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총남》 제3권 제4호, 충남발전연구원, 1997.